

# 남자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니까 당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영국의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은 사랑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연인은 사랑을 이유로 서로가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비스코트는



▲ 사진=shutterstock

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양쪽에서 태양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자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과 관련한 콘텐츠는 많지만 남자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없다. 사랑은 양쪽에서 태양을 느끼는 것과 같은 데도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건 평소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남자들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남자가 여자친구로부터 사랑을 느낄 때를 ‘인사이트’가 소개했다.

### ◆ 보자마자 꼭 안아줄 때

모든 남자가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남자가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을 여자친구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다. 여자친구가 걱정하는 게 싫어서다. 이런 남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상처가 위로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다.

남자들에게 위로받는 데 있어 무언가 특별한 게 필요하지는 않다. 내 옆에 있는 존재가 나를 믿어주고 나만 바라봐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들었던 기억은 싹 사라진다.

데이트 약속 장소에 도착해 저 멀리 남자친구의 모습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않고 뛰어가 꼭 안아줘 보자.

◆ 몰래 데이트 비용 내줬을 때  
사실 남자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 무단히도 애를 쓴다.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언제나 n분의 1을 하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나서서 모든 비용을 내리는 이유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 부담될 때도 있겠지만 아깝지는 않다. 보통 여자친구를 진정 사랑하는 남자라면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자신 몰래 데이트 비용을 내고, 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을 때 감동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자신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자친구를 위해 무언가를 해줬던 것처럼 같은 행동을 보인 여자친구의 마음도 자신과 같다는 든든한 믿음을 얻는다.

### ◆ ‘고생했어’라며 이름 불러 줄 때

어른이 된 이후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자신의 이름을 따듯하게 불러주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잘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말이다.

이럴 때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내 앞에 와 있는 남친에게 ‘고생했어’라며 이름을 불러주는 여자친구는 그 어느 때보다 감동일 수밖에 없다.

### ◆ 사랑한다고 말해 줄 때

‘사랑한다’는 직접적인 표현만큼 효과 있는 게 있을까? 아주 짧고 농담조로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과 진심을 담아 사랑해라고 말하는 건 큰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자.

진심이 담긴 말 한 마디가 남자를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 ■ 신간

# 상관없는 거 아닌가?

재기발랄하고 아름다운 가사와 개성 있는 음악으로 사랑받은 뮤지션 장기하의 첫 산문집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대중음악가로서 느끼는 일상에 반사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솔직, 담백, 유쾌하게 담았다.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관한 때론 웃기고, 때론 싱겁고, 때론 마음 깊이 공감할 만한 장기하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인터넷교보문고의 ‘책소개’ 중에서)

■ 장기하 지음 | 문학동네 펴냄 | 264쪽

# 구이마을

## 투고 환영

참숯불 구이 • BBQ 콤보

구이마을 별미  
**꼼장어**

강력추천!!!  
**곱창구이, 볶음**

숯불구이  
**유기농이채**

다양한  
**콤보스페셜**

구이마을 추천  
**황태구이**

대창구이, 곱창구이, 막창구이  
푸꾸미찜, 아구찜

714.484.9292

8535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Valley View

Crescent  
Market

Beach

CHAPMAN CARE CENTER  
Skilled Nursing and Sub-Acute Facility

# 채프먼 케어센터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요양병원

가든그로브와 에너하임의 경계에 위치한 채프먼케어센터는 99개의 침대를 보유한 숙련되고 전문화된 준급성의 시설로 환자에게 최고의 간호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HMO, PPO 보험 받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캐시 플랜도 제공합니다.

전문 간호 서비스

- 24시간 전문 간호사 케어
- 단기 재활 치료 및 장기 치료
- 링거 투여 (정맥 치료)
- 튜브 음식 투여 관리
- 전문 상처 관리
- 비경구영양, 정맥영양
- 당뇨병 관리
- 투석전후관리
- 근육경축/부목
- 통증 치료 및 관리
- 회복간호지원 프로그램 제공

채프먼의 특별 혜택

- 개인실 및 2인 1실 제공
- 전문 영양사의 전문 메뉴와 식습관 관리
- 일상 생활 프로그램 지원
- 모든 방에 TV와 인터넷 제공
- 미용과 이발 서비스 지원
- 사회복지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 종교 서비스
- 퇴원 절차 관리
- 한국 문화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게임과 특별한 메뉴 제공)

추가 특별 서비스

- 약 서비스 (처방약 포함)
- 각종 검사와 방사선 검사
- 전문 영양사와 영양 상담
- 치과, 청각, 검안과, 발 전문의 서비스
- 심리학과 정신과 서비스 제공
- 호스피스 간호 서비스 제공
- 워터 간호 서비스 제공

재활 치료 서비스

- 물리 치료
- 작업 치료
- 언어와 연하 치료

준급성 치료 서비스

- 모든 숙련된 간호 및 재활 서비스 포함
- 호흡 치료
- 기관절 절개 치료
- 인공 호흡기 관리 및 치료

# 채프먼케어센터

Tel: 714.971.5517 Fax: 714.971.5701

12232 Chapman Avenue Garden Grove, CA 92840

한국인 담당 / Faith Kim(페이스킴)

# 714.469.5720

faithk@chapmancare.net

입원/퇴원 수속에 관한 문의는 연중 무휴 팩스 가능